



“부상없이
캠프
만족한다”

KIA 타이거즈 선수들 귀국 “스프링캠프서 흘린 땀 V11로 보상 받아야죠”

KIA 타이거즈가 V11을 위한 예열을 끝내고 안방으로 돌아왔다.

미국 애리조나에 이어 일본 오키나와에서 스프링캠프를 치른 KIA 선수단이 6일 귀국했다.

지난 1월20일 애리조나에 1차 캠프를 치른 선수단은 체력 및 기술훈련을 소화한 뒤, 2월 9일 오키나와로 건너가 일본과 한국 팀과의 연습경기를 갖고 실전훈련을 진행했다.

13차례의 연습경기 성적은 3승1무9패. 승보다 패가 더 많지만 난제로 꼽히던 ‘부상’이라는 숙제를 잘 풀어내면서 성공적인 캠프가 됐다는 평가다.

진정팀에서 두 번째 스프링 캠프를 지휘한 선동열 감독은 “지난해 마무리캠프부터 스프링캠프까지 부상 선수가 없었다는 것이 가장 큰 성과”라며 “캠프 중 부상은 시즌 전력과 직결되기 때문에 염려를 많이 했는데 부상 선수가 없어 다행스럽다”고 전지훈련을 끝낸 소감을 밝혔다.



① SUNI이 말하는 캠프 성과

수비 - 공들여 훈련... 눈에 띄게 좋아졌다
타격 - 'LCK포' 부활에 기대 커
투수 - 선발·마무리 확정... 불펜은 구상 중

을 끝낸 소감을 밝혔다.

공을 들였던 수비부문에서도 눈에 띄는 성과가 있었다는 평가지만 마운드는 여전히 테스트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선 감독은 “투수들이 마무리캠프부터 많은 투구를 실시하며 힘든 과정을 거쳤다. 많은 투구를 소화하다 보니 피로도가 캠프 후반에 나타나 연습경기에서 다소 부진한 결과가 있었다. 하지만 시범 경기를 거치면서 안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캠프에서 선 감독이 선수단에 가장 강조한 부분은 ‘부상방지’였다. 지난 시즌 주전 선수들의 줄부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부상’이 가장 큰 숙제였다. 선 감독의 주문대로 부상에 대한 대처가 잘 이뤄지면서 눈에 띄는 부상 없이 캠프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또 부상으로 자취를 감췄던 이범호-최희섭-김상현으로 이어지는 'LCK포'도 부활하며 캠프에 활기가 들었다.

선 감독은 “훈련을 하면서 선수단에 강조한 것은 첫째도 부상방지, 둘째도 부상방지였다. 경기적인 측면에서는 개인보다 팀 플레이를 강조했다. 선수단이 의도한 대로 잘 움직여줘 고맙게 생각한다”며 “지난 시즌 좋지 못한 성적으로 팬들에게 실망을 드렸는데 이번 캠프에서는 부상 없이 훈련을 잘 소화했기 때문에 기대를 해도 좋을 것이다. 선수단의 목표는 단 하나다. 우승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언급했다.

9일 시작되는 시범경기는 선 감독의 2013시즌 구상을 엿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전망이다.

선 감독은 “야수 부문은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왔는데 시범 경기를 통해 최종 베스트 라인업을 완성할 계획이다. 투수 부문에서는 선발과 마무리를 정해졌지만 중간 투수진의 구성은 지금도 진행중이다. 이번 시범경기를 통해 확실한 구상을 마칠 것이다”고 말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추신수 안타

MLB 시범경기, 신시내티 역전패

미국프로야구(MLB) 신시내티 레즈의 추신수가 시범경기에서 안타를 추가했다.

추신수는 6일 미국 애리조나주 템피의 디아블로 스타디움에서 열린 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와의 경기에서 1번 지명타자로 선발 출장해 3타수 1안타를 쳤다.

가벼운 허벅지 통증으로 결장하다가 전날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경기에서 대타로 출전해 무안타에 그친 추신수는 이날 다섯 경기 만에 안타를 추가, 타격감을 조절했다. 이번 안타로 추신수의 타율은 0.250에서 0.267로 조금 올랐다.

1회 타석에서 중견수 뜬공으로 잡힌 추신수는 3회에도 선두 타자로 나서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5회에 선두 타자로 타석에 선 추신수는 상대 네 번째 투수 케빈 잭슨으로부터 좌전 안타를 뽑았다. 폭투로 2루까지 나아간 추신수는 조이 보토의 타석에서 도루를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추신수는 7회 터커 반하트를 교체됐다. 신시내티는 이날 7회 대거 5실점 해 4-6으로 역전패했다. /연합뉴스



추신수

‘멘붕’ 한국야구

WBC 1라운드 첫 탈락... 타격·근성·작전 실종 ‘최악의 참사’



한국야구가 국가대항전인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처음으로 8강에 겨우 2라운드 진출에 실패했다. 류중일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5일 대만 타이베이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대만과의 2013 WBC 1라운드 B조 3차전에서 8회말 강정호(넥센)의 2점 홈런타에 3-2로 역전승했다. 네덜란드와의 1차전에서 0-5로 진 뒤 호주와 2차전에서 6-0으로 승리한 한국은 2승1패로 대만, 네덜란드와 동률을 이뤘다.

하지만 대회규정에 따라 세 팀간의 경기기록중 ‘득점·공격·이닝’-(실점·수비 이닝) 수치를 비교하는 팀 퀄리티 밸런스(TQB)에서 대만, 네덜란드에 이어 3위로 밀려 각 조 1, 2위가 나서는 2라운드 진출이 좌절됐다.

TQB는 2차전에서 네덜란드를 8-3으로 꺾은 대만이 플러스(+), 네덜란드는 0, 한국은 마이너스(-)다. 네덜란드전 완패에 결국 발목을 잡힌 셈이다.

한국이 올해로 3회째를 맞은 WBC에서 8강에도 오르지 못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은 2006년 제1회 대회에서 4강, 2009년 대회에서는 2연패를 이룬 일본에 이어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국 선수단은 6일 오후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해

각자 소속팀으로 돌아가 오는 9일 개막하는 프로야구 시범경기를 준비한다.

주요 외신들은 6일 제3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B조 결과를 보도하면서 대만과 네덜란드의 2라운드 진출 소식보다 한국의 중도 탈락을 보다 비중 있게 다뤘다.

미국 AP통신 계열 APTN은 “2009년 제2회 WBC 준우승팀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충격적인 결과”라며 “한국이 WBC 역사상 준결승에 오르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은 “2009년 WBC 결승 진출국인 한국이 첫 번째 상대인 네덜란드전 0-5 패배를 극복하지 못하고 탈락했다”고 썼다.

AFP통신은 WBC 대회의 단골손님인 한국이 어느 대회보다 일찍 탈락했다고 보도했다.

일본의 스포츠전문지 스포츠초치는 “2009년 제2회 대회에서 일본과 사투를 벌인 한국이 1라운드에서 사라졌다”며 놀라움을 표시했다. 이 신문은 한국은 2008년 베이징올림픽 우승과 2009년 제2회 WBC 준우승 등으로 프로야구의 인기가 뜨겁다면서 “올해는 9구단이 리그에 참여하지만 그런 기세를 찬물을 끼얹는 것이 될 것 같은 1라운드 탈락이었다”고 꼬집었다. /연합뉴스

승	패	A조 순위	B조 순위	승	패
2	0	쿠바	1	대만	2
2	0	일본	2	네덜란드	2
0	3	브라질	3	한국	2
1	2	중국	4	호주	0

5일 오후 대만 타이베이 인터컨티넨탈구장에서 열린 제3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 B조 1라운드 한국 대 대만 경기. 류중일 감독이 0-2로 뒤진 상황에서 7회말 공격을 지켜보며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류중일 감독 “선수들은 최고... 내 역량 부족했다”

“WBC 탈락 국민께 죄송”

제3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WBC)에서 1라운드도 통과하지 못한 채 짐을 싣 한국 대표팀의 류중일(50·삼성) 감독은 “내 역량이 부족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류 감독은 5일 대만 타이베이 인터컨티넨탈 구장에서 열린 대만과의 1라운드 마지막 경기를 마친 뒤 대회를 일찍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전했다.

이날 한국은 대만에 3-2로 역전승해 2승1패를 만들었으나 팀 퀄리티

밸런스(TQB)에서 뒤져 대만, 네덜란드에 2라운드 진출권을 내줬다.

어두운 표정으로 기자회견장에 들어선 류 감독은 “제1회 대회 4강, 제2회 대회 준우승으로 한국 프로야구의 위상이 높아졌는데 아쉽게 이번에는 2라운드에 오르지 못했다”면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을 꺼냈다.

그는 “5점차를 내야 한다는 것이 내게나 선수들에게나 모두 부담스러웠던 것 같다”면서 “너무 늦게 (타석이) 터진 것이 아쉽다”고 경기를 복기했다.

류 감독은 이번 대회 대표팀이 선수들의 잦은 이탈로 제대로 꾸러지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없다”고 단호히 밝혔다.

그는 “패장이 무슨 말을 하겠느냐”면서 “최고의 선수들을 데리고 대회를 치렀고, 내 역량이 부족했을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류 감독은 “1라운드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간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한층 발전하는 프로야구가 되길 희망한다”고 마지막 소회를 전했다. /연합뉴스

광주 U대회 전국대학 홍보 투어... 퀴즈풀기 등 이벤트도

2013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조직위원회(이하 광주U대회 조직위)가 전국대학 현장 홍보 투어를 나섰다.

광주U대회 조직위는 6일 서울여대를 찾아 대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다. 이번 투어는 최근 실시한 UCC 공모전 입상팀 소속대학을 방문해 현장시상과 다양한 이벤트를 선보이는 행사다.

가장 먼저 서울여대를 찾은 조직위는 UCC공모전 시상식을 비롯해, 우지원(스포츠해설가)이 참여한 스포츠 스타와 함께 U대회 퀴즈풀기, 대학동아리 공연, 경품 증정

이벤트를 펼쳤다.

이번 투어는 이달 말까지 계속되며 경기대, 중앙대, 조선대, 계명대, 카톨릭대 등 전국 6개 대학을 대상으로 한다.

이와 함께 온라인상에서는 U대회 퀴즈, SNS소문내기, 순연재(누리비)와 인종샷 이벤트 등이 동시에 진행된다.

‘전국 대학투어 등 온라인 이벤트’ 관련소식은 광주U대회 웹사이트(www.gwangju2015.kr) 또는 페이스북(www.facebook.com/Gwangju201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기차표/항공권/승선권
국제선 할인항공권 판매**
(주)대원여행사
062)526-7000
신세계백화점 사거리
www.daewontour.com
광주역 525-4835 | 송정역 941-3278

영주 부석사 선비촌 기차여행

- 출발일 **3월 22일(금)** 23:50경 광주역 출발(무박 2일)
- 여행비 68,000원
- 여행코스 부석사/소수서원/소수박물관/선비촌/죽령옛길/풍기인삼시장 및 5일장
-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버스비, 입장료, 여행자보험료
- 불포함 식사비
- 특전 영주시에서 인삼비누 세트 증정(15,000원 상당)

진해군항제 벚꽃축제 기차여행

- 출발일 **4월 4일(목) / 4월 9일(화)** 광주역 출발(당일)
- 여행비 37,000원
- 여행코스 해군사관학교/해군기지사령부/여좌천(내수면연구소)/제항산공원
- 포함사항 무궁화호 왕복 열차비, 여행자보험료
- 불포함 식사비